



채소지

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곳

똑같은 채소라도, 농부마다 수많은 채소의 맛이 있습니다.

채소지에는 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삶과 농사 이야기를 담습니다.

흙과 풀과 벌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의 숲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곳에, 그 숲에서 자라나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 농부만의 특별한 채소 맛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농부가 되기까지

두 번째 이야기

닭과 함께 사는 작은 농부들

세 번째 이야기

농부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꿈

네 번째 이야기

시간을 쫓으며 땅을 기르는 농사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8월~9월



아로니아와 오디나무 아래에서 뛰어논다는 닭이 낳은 달걀을 부지런히 담아오는 파파팜&밀마운트 농가. 유정란 외에도 철마다 탐스러운 채소를 다양하게 가져오는 이 농장의 풍경이 정말 궁금했다. 이 여름 울창한 나무 아래 닭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온갖 것들이 풍성할 채소밭의 모습은 어떨까.

땅 위에서 햇볕과 바람을 받으며 온갖 채소를 사람과 나누어 먹고 자라는 닭의 달걀을 받고, 그 분변으로 기름진 땅을 일구어 농사짓는 가족. 부모님의 농장인 ‘파파팜’에서는 오디나무 아래 사는 닭과 함께 수십여 가지 채소가 오직 자연의 힘에 기댄 농부의 손에서 자라난다. 부모님의 집에서 귀농생활을 시작했던 딸은 농사지으며 연을 맺은 남편과 함께 자립하는 농가의 꿈을 ‘밀마운트’ 농장을 통해 실현해가고 있다. 산꼭대기에 자리한 이곳에서 닭들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가평의 풍경을 오롯이 즐기며 아로니아 나무 아래 풀밭에서 뛰어논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을 기다리는 계절
8월을 맞이하며,
닭과 함께 땅을 일구는 가족,
파파팜&밀마운트를 만났다.

파파팜&밀마운트

첫 번째 이야기

농부가 되기까지



‘좋은 농산물은 어디서 오는가’
본질적 고민이 들 때
농업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진옥: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5살 때 어머니 고향인 가평으로 귀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농사지으셨으니 40년이 넘었네요.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 농사를 도우며 가평에서 자랐어요. 대학 졸업 후 줄곧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도시 생활에 익숙해 한번도 시골이나 농사를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농사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
이러니하게도 직장에서도 출발했어요.

유기농 당근 농축액, 포도 농축액 등 과일 야채 농
축액을 수입하는 에이전시에서 오래 일을 하며 유
기농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한국에 처음 유기농
인증제가 들어올 때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귀농 직전에는 회사에서 외식사업부를 맡아보면서
좋은 경험을 얻었어요. 건강하고 좋은 식자재에 대
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정확히 2013년도 4월 23
일에 귀농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회
복시킬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책상에 앉아 생각
할 때는 좋은 농부를 찾아 식자재를 공급받자는 게
결론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식자재 원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좋은
농산물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본질적 고민이 들었



어요. 좋은 농산물은 좋은 농부에게서 올 텐데 좋은 농부는 어디에 있나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농사지 어오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때 농업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정도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배우자, 그 이후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시골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 유정란을 키우게 된 거고요.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버섯장을 빌려 닭을 키워보자는 생각이었죠.

농촌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대학 이후로는 쪽 도시에서 지내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는 틈틈이 귀농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이 계신다고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내려갈 수는 없으니, 퇴근 후 여성농민회, 희망제작소의 귀농·귀촌 강의 등 여러 교육을 들으며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 고정 소득을 벌면서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러다 자연순환농업 방식으로 유정란을 생산하는 충북 보은의 보나콤 양계 공동체를 알게 되어서 그곳 교육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 드리고, 저도 이어서 들으며 양계 공부를 했죠. 유정란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해보자고 결정하고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병아리를 데리



고 들어왔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오랫동안 방치된 버섯사의 콘크리트 바닥을 다 깨고 보수해서 병아리를 데려와 키운 것이 첫 시작이었죠.

2013년 8월 28일, 갓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330마리로(암 300, 수 30) 시작했어요. 처음 키워보는 거니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5개월 뒤 닭이 처음 낳은 초란을 두 손에 쥐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따뜻함과 보드라운 감촉을 손안에 가득 담은 채 기뻐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서울 갈까’ 생각했었죠.
가까이서 볼수록 닭이 참 대단해요.
닭들에게 발목이 잡혔어요.

황진옥: 초기에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서울 갈까’ 생각했었죠. 농촌의 육



체노동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자급사료 70%, 배합사료 30% 썼어요. 자급사료 100%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영양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양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니 자급사료로만 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길러보니 사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닭들에게 좋은 환경, 풀을 많이 먹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죠. 중간납품하지 않고 정기 회원제로 100% 직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초기에는 계란 파는 게 참 어려웠는데, 지인과 인맥을 총동원하고, 페이스북 홍보, 오프라인 프로모션, 직접배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직거래판매에 집중해서 노력했더니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해서 직접 서울까지 들고 가서 팔기도 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거래 판매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안전한 택배 포장재를 찾느라 몇 달을 알아보고 테스트에 테스트를 반복했죠. 덕분에 계란은 지금도 주문 회원들이 꼭 차서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지는 않게 팔아요.

주변에서는 부족하면 더 기르라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밀마운트 농장과 부모님의 파파팜 농장 합해서 300수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더 많아지면 관리가 소홀해질 것도 우려되고, 소음 문제 등도 있고요.



닭을 키우면 그 퇴비를 써서 생태순환농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도 그 부분만큼은 고집을 지키면서 닭을 키우고 계시죠. 가까이서 볼수록 닭이 참 대단해요. 공부하다 보면 닭의 세계가 너무 재밌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요. 그렇게 저도 닭들에게 발목이 잡혔어요.

귀농 후 농업대학에서 맺은 인연,
삶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서로 든든한 동반자예요.

황진옥: 닭을 키우다 보니 농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기도 했고, 지역에 잘 정착하려면 주변 농민과도 교류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 추천으로 2015년에 가평클린농업대학 친환경농업과에 가게됐어요. 사실 가기 전에는 새롭게 배울 게 얼마나 있을까 싶었는데 가보니 공부하는 것도 새롭고, 교육과정도 정말 좋았어요. 농업의 새로운 면을 보며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고 결혼하면서 이제 완전히 농업에 정착하게 됐죠.

귀농해서 농업대학에서 인연을 맺은 부부는 처음이라 지역에서도 유명해요. 제가 결혼을 할 거라고는 저도 주변에서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주변에 결혼하고픈 사람들에게는 귀농하라고 우스갯소리도 하죠.





남편이 전기, 수도, 건축을 다 잘 다루고 원래 IT 엔지니어였는데 손으로 하는 걸 다 잘해요. 농촌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가까운 곳에 기술자가 없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남편이 뭐든 손으로 똑딱 만들어내요. 농촌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서로 든든한 동반자예요.

유봉호: 저는 원래 IT분야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서울 강서구 주택 마당에서 진돗개 하늘이를 자식처럼 키우며 지내고 있었는데, 주택 밀집 지역이다보니 개 짖는 소리에 민원도 많고 해서 하늘이를 풀어 키울 수 있는 곳에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서울근교에 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루는 하늘이를 혼냈더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가출한 거예요. 동네를 다 뒤져도 보름 동안 못 찾



다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당하기 직전이었던 하늘이를 겨우 찾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부동산에서 가평에 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고 말 것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하고 산 땅이 지금 저희 집이 있는 곳이에요. 알고 보니 위치도 다르게 산꼭대기더라구요.

주변 땅 주인도 여러 명이 얹혀있고, 맹지여서 초반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러저러한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고 땅을 개간하려고 포크레인 자격증도 따고 그랬었죠. 집 준공까지 총 4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마을 분 추천으로 가평클린농업대학에 가려했는데 주소지가 가평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주소로 가평으로 이전하고 입학했어요. 지나고 보니 그날 2015년2월6일이 제가 가평으로 귀농한 날이 되어버렸네요. 거기서 진옥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가 맺어준 인연이죠.

